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 교육관에서 6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아체로 1년 6개월간 평화복무를 위해 떠나는 김원중 청년을 위한 후원차집이 오늘 점심시간에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2014년 상반기 새교우 환영회가 다음 주일(29일)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집회시간에 이유진 선생(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일에는 교회 마당에 가급적 주차를 삼가시고, 수요일저녁예배 주차 시 안쪽부터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 21:8~21 / 시 86:1~10 롬 6:1b~11 / 마 10:24~39

마 26:1-13

오늘 식당 봉사 : 강순배 국지연 서안나 김지윤 정영우 김지호 이민범
다음 주 식당봉사 : 박영신 조순덕 허명선 김정미 고정립 이종배 김종락
오늘설거지봉사 : 5여선교회 박진숙 추현영
다음주설거지봉사 : 6여선교회 박진숙 추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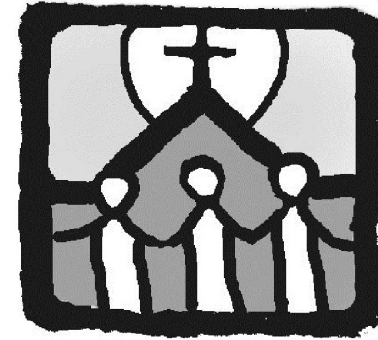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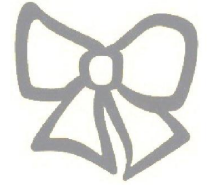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너무 오랜 세월을 이산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아물 줄 모르고 오히려 자꾸 덧나기만 합니다. 주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분단된 민족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표류하는 배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 제일을 외치는 이 사회의 평화지수는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작은 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사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김명희 집사
김극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시영 김애경 김윤수 박상호 김종락 박영신 김종문
지명주 김중현 성귀옥 김지호 전해리 김철수 유영남 김필순 김현주
김흥기 김희진 박홍재 문금석 박영희 박예림 변재민 이소혜 심상숙
원인해 윤미경 윤정덕 구성실 이부곤 이순연 이왕준 송상경 이용석
이윤석 박안수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지훈 정선희 정원석 김현영
정종삼 조현권 박아영 한기택 무명

감사헌금

권혁순 박혜경 김기석 김희우 김시영 김인석 이선화 김진중 안수연
김현동 오유경 김희우 박기영 오미숙 오진훈 노순옥 이병수 정해숙
이성익 이유일 김미희 정윤성 서효진 정현숙 한미영 무명10

녹색꿈헌금

김정진 김혜정 무명3

	백혜숙	박성희	오승경	고숙이
	신진식	최경미	이은옥	정복희
	장영숙	신영신	김진경	이명희
	노순옥	진정숙	안정숙	박옥순
	박홍재	박홍재	박홍재	김윤수
	권미숙	박미영	정영례	박효선
	김금순	김금순	이순정	강순배
	곽권희	윤수진	윤미경	이정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정현주
	정영선	홍춘숙	홍춘숙	김경혜
	박혜경	박혜경	최영혜	백성래
	김재흥	오자영		
	김재흥	송형운		
	이범석	이진영		
	이범석	곽상준		
	신진식	윤성중		

인연

- 김해자

너덜너덜한 걸레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또 망설인다
 이번에 버려야지, 이번엔 버려야지, 하다
 삶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사이
 또 한 살을 먹은 이 물건은 1980년 생
 연한 황금색과 주황빛이 만나 줄을 이루고
 무늬 새기어 제법 그럴싸한 타올로 팔려온 이놈은
 의정부에서 조카 둘 안아주고 닦아주며 잘 살다
 인천 셋방으로 이사 온 이래
 목욕한 딸아이 알몸을 뽀송뽀송 감싸주며
 수천 번 젖고 다시 마르면서
 서울까지 따라와 두 토막 걸레가 되었던
 20년의 생애,
 더럽혀진 채로는 버릴 수 없어
 거덜난 생 위에 비누칠을 하고 또 삶는다
 화염 속에서 어느덧 화염에 든 물건
 쓰다쓰다 놓아버릴 이 몸뚱이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장로 :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늘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곳곳에 감추어진 그 기쁨을 맛보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전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아멘. 땅만 바라보며 살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일상 곳곳에 감추어진 보물 같은 기쁨을 열심히 찾으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기꺼이 이웃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예배 설교 : 김재흥 목사	설교 : 이범석 목사 기도 : 안길상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범석 목사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홍순구 권사	박숙영 선생 곽상준 집사

6	영접위원	방문성 윤성종 송동준 안정숙 김윤정 김진경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기후 변화를 삶의 변화로

지난해 9월 발표된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제5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18세기 중반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0.85℃ 상승했다. 지구 온도가 1℃ 상승하면 전 세계 생물의 10%가 멸종위기에 처하고 매년 30만 명이 기후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것으로 스텐보고서(Stern Review)는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달 경상남북도 등 영남지역 3개 시도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5월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이는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빠르게 폭염특보가 내려진 6월보다 한 달이 앞당겨진 셈이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여름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연관성이 높다. 실제로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10년 단위로 0.4℃씩 상승해왔다. 이 같은 지구온난화는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야기하고 홍수와 가뭄, 지역에 따라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세기가 강화되는 추세로도 나타난다. 얼마 전 고양시 일대에 발생한 용오름 현상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최근 50년간 온난화 추세가 지난 100년간의 추세보다 2배 이상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름 철새인 제비가 일찍이 우리나라를 찾아왔고, 배추흰나비는 작년엔 비해 17일이나 빨리 알에서 깨어나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른 더위가 생태계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고스란히 보고 느낄 수 있는 계절의 주기마저 잃어버리고 현대인들의 쫓기듯 정신없는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들은 극심한 더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변화를 야기한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극곰의 생존이 위태롭다는 것과 녹은 빙하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여 저지대 해안에 위치한 섬나라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다. 또한 매년 서울의 4배 규모의 땅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식량·물 부족과 황사 등에 따른 지역 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은 흑점과 같은 태양활동의 변화 또는 지구 공전궤도의 변화에 의한 자연적 요인과 온실가스에 의한 온실효과로 인한 요인이 있다. 온실가스는 태양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였을 때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고마운 존재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이 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연소와 삼림 벌목 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급증하였고,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인구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이산화탄소배출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몰디브나 투발루처럼 50년 안에 해수면 상승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돌보라고 명령하신 생명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우리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적인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살펴보는 알뜰함이 필요하다.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식품과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여 과도한 농약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먹거리 생산 구조를 바꾸는데 힘을 보탬 수 있다. 물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오래두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건강한 소비를 습관화하여 불필요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도 지구자원의 순환고리를 건강하게 이어줄 것이다. 베란다에 작은 텃밭을 두어 내 주변의 생명들에게도 곁을 내어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에서 베란다에 미니태양광을 달아주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 집에 내리쬐는 햇볕 한줄을 귀하게 쓰는 것으로도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존재는 말하지 못하는 생물들에서부터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인과 아이들 그리고 빈곤 계층의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미약해보일지라도 작은 실천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